| 불자 세상보기 |

나를 성찰하는 휴가



황수경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기존 피서에 지친 사람들
이제는 스스로를 가두고
자신 성찰하는 기회 삼아

평소 우리의 관심은 외부에
24시간 정보에 노출돼 피로
'혼자만의 시간' 필요성 대두

"내 목표와 삶은 무엇인가"
너무 늦지 않게 나에게 묻길

"휴가는 어디로 가요"라는 질문에 심심찮게 "집 떠나면 고생이니 조용히 쉴 거예요"라는 답이 돌아오곤 한다. 특히 성수기에는 가는 곳마다 사람에 치여서, 산이나 바다가 아니라 사람만 실컷 보다가 온다는 말도 있다. 그러다보니 충분히 쉬지 못해 휴가후유증까지 발생한다고 하니, 집이나 집 근처에서 휴가를 조용히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계사 앞에서 만난 한 외국 여성은 템플스테이에 가서 휴식형으로 쉬고 싶다고 한다. 벌써 여러 번 경험이 있는 그는, 웬만한 리조트보다 한국의 조용한 절에서 묵는 것이 더 힐링이 된다고 한다.

50대인 김 거사는 올해 여름 무문관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한다. 몇 년 전 체험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난생 처음 혼자서만 며칠을 지냈어요." TV도 컴퓨터도 없고, 항상 들여다보던 휴대폰도 손에 없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이 너무 낯설었지만, 절에서 배운 대로 곧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 경험이 그렇게 좋았다고 한다.

마음을 만나는 맛이 너무 새롭고 신선하고,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라고 한다. 1주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는 무척 아쉬웠고, 가끔 그 시간의 신선함과 텅빈 공간이 그립다고 한다.

평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외부로 쏠리고 있다. 하루 종일 인터넷과 휴대폰은 쉬지 않고 정보를 쏘아댄다. 정보에 강제로 24시간 과다 노출된 상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깜깜하고 불통인 경우가 많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쌓이는 분노, 우울과 무기력증, 마음에 누적된 스트레스는 몸의 질병으로까지 연결되곤 한다. 몸이 회사에 있든, 집에 있든, 유명 관광지에 있든, 자기 마음을 모르고 지낸다면 불통이긴 마찬가지다.

일부러라도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온전히 자기 혼자 지내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부처님께서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하셨다. 자기야말로 일생일대의 VIP중의 VIP, 최고의 귀빈인 것이다. 직장인들은 고객의 욕구에는 민감하고 서비스하려고 하면서, 정작 자기자신의 요구나 마음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니 모처럼의 소중한 휴가기간을 자기 마음과의 대화시간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고 마음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과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돈을 벌어야 하고 일해야 하는 것이 본인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과정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너무 늦지 않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명상을 하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오늘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경책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그 마지막 날은 예외없이 올 것이며,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오늘 자신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은 급한 일이 된다.

한 젊은 아빠가 호소한다. "혼자 지내기는 어림없어요. 애가 어려서 휴가 때는 어디든지 같이 떠나야만 해요." 이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도 마음만은 고요하게 정진할 수 있다.

집착을 놓고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다. 시시비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의 주장자에 중심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쉴 수 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한다면 저잣거리에서도 마음을 푸욱 쉴 수 있지 않을까. 유난히 더운 여름, 행주좌와에 깊고 자비로운 불성과의 만남으로 마음만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식을 누렸으면 한다.

社說

불교계, 국정과제 대응 준비해야

문재인 정부가 7월 19일 발표한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과제는 정부 정책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불교계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불교계 관련 분야는 문화부터 사회·통일 등으로 압축된다. 특히 발표된 과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통일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언급이 있다. 남북교류 재개를 종교 분야 교류를 통해 물꼬를 틀 계획을 갖고 있어서다.

과거사 해결의 경우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념재단 설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교계 역시 해당된다. 10.27법난이라는 아픈 역사의 상흔이 있어서다. 또한 제주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불교 사찰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논란이 된 가야사 복원도 국정과제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가야사 복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가야불교사 정립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눈에 띄는 문화재 정책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주요 내용에 있는 사안으로 도저히 어떤 문화재 정책을 전개할 것이라는 방향을 가늠하는 게 어렵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두고, 이제 불교계는 정부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노정될 것은 자명하다. 대체 휴일 전면 도입 등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제 정책으로 인한 변화를 대비하자.

'푸른 눈' 불교학자에게 관심을

한국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고국인 아일랜드로 돌아가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존 리 씨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학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선교일치'에 매료돼 한국에서 무려 6년 반을 거주하며 한국불교만을 공부한 그이기에 주위로부터 들려오는 안타까움이 크다.

존 리 씨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 겪은 전세금 사기다. 그가 보수 많은 직업을 택하지 않고 불교를 추구하다보니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탓도 있지만 전세금 사기로 인한 부채를 갚는데 많은 세월을 보낸 것이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물론 이 같은 이유만으로 꼭 그를 도와야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한국불교계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내용에 있다.

존 리 씨의 연구주제는 '유럽을 배경으로 한 현대 한국선의 확대'다. 일반적으로 한국불교계의 해외포교는 영어를 기반으로 한 획일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유럽에 정착하기 위해선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 접근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그는 파리 길상사와 폴란드 우봉사, 헝가리 원광사 등을 방문해 현장연구를 수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불교의 세계화를 강조하는 한국불교계가 이 같은 고민을 얼마나 깊이 해봤는지 반성할 일이다. 어쩌면 이는 우리의 당면과제를 외국인 학자에게 떠맡긴 셈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한국불교계는 푸른 눈의 불교학자가 겪는 고충을 보다 넓은 마음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 이미 하버드대 출신 현각 스님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존 리 씨의 기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후원자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불교를 사랑하는 외국인학자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이 닿길 기원한다.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기자

콘텐츠가 올림픽 성공 이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7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다. 취재를 위해 조계사를 지나가고 있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참배객이 있었다. 바로 사리친견 법회 동참자들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더위에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그 사리 앞을 정성스럽게 지키고 있는 조계사 신도들의 정성이었다. 우리 절의 성보, 불교계의 성보란 마음가짐이 체감온도가 40도는 넘는 날에도 이들에게 스스로 한복을 입고 나서게 만들다. 흐르는 땀방울에도 이들의 시선은 사리에 꽂혀 있었다.

이런 신심어린 노력 때문일까. 7월 25일 회향한 조계사 사리친견법회에는 49일간 수만명의 불자들이 방문했다.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살아있는 성보로서의 사리를 친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앞선 7월 24일은 평창올림픽 개최가 200일 앞둔 날이었다. 2011년 7월, 남아공 더반에서 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호명되자 수많은 국민들이 환호했다. 10년의 시간 동안 3수 끝에 일궈낸 동계올림픽 유치는 큰 기쁨을 선사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앞선 2006년 5월 평창과 관련돼 국민들이 환호한 일이 또 있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반환이었다. 이후 2011년 조선왕실의궤의 환수까지 이어졌다.

당시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 환수에는 불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 평창 월정사 등은 십수년간 일본의 관계자를 찾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이면에는 우리의 문화재, 성보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는 평창 월정사 오대산사고가 본 소장처임에도 아직도 제자리인 오대산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서울대에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관리주체가 이관된 이후 여전히 타향살이를 계속하고 있다.

다시 올림픽을 돌아보자. 올림픽을 6개월 여 앞둔 지금,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평창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48%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 열흘 전 64%에 비해 국내 개최임에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흔적이 올림픽 준비현장 곳곳에서 드러나며 올림픽 선정 자체에 대한 국민적 반감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올림픽 조직위원회나 지자체장들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리기 위한 발길도 바빠지고 있다.

그렇다면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을 해보면 그 해답은 자명하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과 세계인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콘텐츠는 누가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에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사찰이다. 무더운 여름에도 스스로 한복을 입고 나선 조계사 불자들과 같이 말이다.

정부는 넓은 의미의 문화올림픽, 그리고 전통문화 활용을 위해서라도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의 본 소장처 반환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평창올림픽을 기해 한국을 찾는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기대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가슴을 뛰게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2자
◀대북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